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가 사라진다

시교육청 용도변경 추진

2022년까지 1차 15교 대상

2억원씩 지원 동아리 등 전환

일부 동문·학부모 반발도

광주 고교 기숙사가 사라진다. 광주시교육청이 체육교·과학교 등 일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교의 기숙사를 수업·동아리·자율학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기숙사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시대 흐름을 타고 일반고 상당수가 시교육청 사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숙사를 운영 중인 일

반고 28개교를 대상으로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차 목표로 2022년 말까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15개 고교 기숙사를 전체 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기숙사 시설 용도변경(폐지) 희망학교에는 2억원의 지원금을 내려 건물재구조화(용도변경 작업)를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에서 수피아여고는 기숙사 전체를, 송덕고는 기숙사 공간 절반을 폐지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체 학생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 중이다.

기숙사 폐지 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을 모아 기숙사 공간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수업 공간, 교내 동아리방, 자율학습 및 공부방, 독서실, 학생자치공간, 휴식 및 체력 단련 공간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고교 기숙사가 동문 후원과 기부 등으로 지어져 기숙사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 학습과 생활 지도를 위해 기숙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서는 28개 일반고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2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 통학 학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상당수 고교가 내선, 모의고사, 진

단평가 등 성적을 입사생 선발에 반영해 사실상 대학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교 기숙사 성적순 입소 관행은 차별’이라는 최근 광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진정을 받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고교의 경우 동문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며, 교육청으로서도 재원이 한정돼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기숙사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극히 일부 고교를 제외한 다수 학교가 기숙사 폐지 후 용도전환이라는 흐름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눈 덮인 무등산 산악구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3일 발간한 '광주소방 화보집'에 실린 '눈 내린 무등산국립공원 산악구조 훈련 모습'. 전국 사·도소방본부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광주소방 화보집'은 총 40쪽으로, 지난 1년간 광주소방의 활약상을 담고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 9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

남북연락사무소에 제안서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11월3일) 90주년을 맞아 북측과 공동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제차 밝혔다. 시교육청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물론 만주 등 해외까지 뻗어나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공통분모로 북측과의 교육교류를 위한 물꼬 트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공동기념사업 제안서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송,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안서에서 ▲학생 등 북측 대표단 90주년 기념식 초청 ▲(북한 수확여행 추진을 위한) 평양 역사문화 견학을 위한 남측 대표단 파견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교환 및 공동조사를 북측에 제안했다. 앞서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광주학생독

립운동기념관은 지난 9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남북 공동 기념식을 제안한 바 있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북측 학교 학생대표 100명을 비롯한 북측관계자 300여명을 광주로 초청해 남과 북이 함께 기념행사를 치르자는 내용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6일 3년만에 부분 일식

한반도 전역서 관측 가능

휴일인 6일 오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일식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3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오전 8시37분부터 일식현상을 볼 수 있다. 태양의 위쪽이 달에 의해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해 오전 9시43분 최대에 이르는 데 이때 태양 면적의 20%가 가려진다. 부분일식은 오전 10시57분 종료된다. 이번 부분일식은 해가 뜬 직후 시작되므로 전 과정을 자세히 보려면 남동쪽 하늘이 탁 트인 곳을 찾아야 한다. 부분일식은 개기일식과는 달리 맨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줄여주는 필터나 여러 겹의 짙은 색 셀로판지 등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일식현상은 평균 6개월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지구 특정 지역에서만 관측된다. 올해는 1월 6일, 7월 2일, 12월 26일 등 모두 3차례 일식이 일어나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1월과 12월에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으로 태양 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분만 가려지면 부분일식이라 부른다. 앞서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새벽시간 3대 유성우라 불리는 1월 사분의자리 유성우가 관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8월 13일 월물 시간인 새벽 3시 18분 이후 좋은 조건에서 관측할 수 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2월 14일과 15일 새벽이 관측 최적기이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3

달뜨기 05:51

달지기 16:11

주말 나들이 옷차림 따뜻하게

밤부터 해안에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5/6

보성

구름많음 -6/6

목포

구름많음 -3/4

순천

구름많음 -3/8

여수

구름많음 0/7

영광

구름많음 -6/4

나주

구름많음 -6/6

진도

구름많음 -2/4

완도

구름많음 -2/5

전주

구름많음 -5/5

구례

구름많음 -8/6

군산

구름많음 -5/5

강진

구름많음 -5/5

남원

구름많음 -8/5

해남

구름많음 -5/4

흑산도

구름많음 3/6

장성

구름많음 -7/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생황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03	00:36
	18:49	13:29
여수	01:40	08:27
	14:28	20:17

◇주간 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1/6	-3/5	-4/5	-3/4	-4/5	-2/6	-2/6

영광 한빛원전 부속건물 화재…큰 피해 없이 진화

3일 오전 9시14분께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부속건물(터빈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터빈건물 상부에 설치된 공기순환 팬 설비에서 시작됐다. 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측은 원전의 자체 초동소방대가 긴급출동, 소화기로 불을 초기에 진

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측은 “현재 1호기는 계획 예정 정비 중이라 발전 운영에 지장은 없다”며 “현재까지는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비아중, 2023년 고교로 바뀐다

광산구 원거리 통학 해소 도움

광주 비아중학교가 고교로 개편된다. 2020학년도부터 고교 신입생을 받아 중·고교 통합학교로 운영되다 2023학년도부터 고교로 완전 전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비아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무양서원의 고교 설립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아중은 2019~2020년 기존 8학급에서 4학급만 신입생을 받고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2020년부터 고교 신입생을 받아 2023년까지는 고교로 완전히 전환하기

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무양서원으로부터 설립계획서를 접수해 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검토,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중학생 배치 관련 협의 등을 거쳤다. 광주 광산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연간 1000명을 넘기도 해 고교 설립 요구가 있었지만, 학교 설립과 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아중의 고교 개편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광산구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謹賀新年

기해년 새해에도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일동

목포외식업중앙회

지부장 김동인 외 직원일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송기현 외 직원일동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직원일동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외 직원일동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 외 의원일동

시장 김종식 외 직원일동

목포농산물도매시장

임직원일동

목포원에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일동

목포미즈아이병원

직원일동

스타라이브

직원일동

(주)보경전기

대표이사 이상선

목포기독병원

직원일동

목포중앙병원

직원일동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직원일동

목포한국병원

직원일동

목포시의료원

직원일동